

아산의 창조적 도전정신과 역발상의 한류 리더십

이상훈 (대진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부 교수)

〈목 차〉

- 들어가는 말
1. 아산과 오바마: “Yes, we can”의 도전정신
 2. 아산의 생철학과 창조적 노동 변증법
 3. ‘생각하는 불도저’와 다중지능
 4. 진취적 시대정신과 역발상의 한류리더십
- 맺음말
참고 문헌

〈국문 초록〉

기업가이기 이전에 시대정신의 개척자였던 아산의 치열한 삶과 생애 정신을 인문학적 창조성과 한류리더십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 글은 다음 내용을 다룰 것이다. 우선, 제1절에서는 20세기를 살았던 아산의 도전적 삶을 21세기의 상징적 역사를 새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연관지워 살펴볼 것이다. 취임식에서 “Yes, we can”을 강조했다던 오바마의 정치철학은 세기와 대륙을 넘어 아산 정신과 상당 부분 맥을 같이 한다. 오바마가 ‘한국을 배우자’고 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제2절에서는 아산의 생철학을 노동에 대한 그의 이해 속에서 살펴보겠다. 아산은 막노동, 농업노동, 상업노동, 공업노동 등 거의 모든 형태의 노동을 종합적으로 다 경험한 인물이다. 그에게 노동은 단순히 몸을 쓰고 일하는 고된 활동의 의미를 넘어, 자신을 깨닫게 하고 사회를 체험하며, 창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민족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나아가 삶의 역능으로 고양시키는 변증법적인 지양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제3절에서는 아산의 ‘생각하고 계산하고 예측하는, 성능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머리’를 한번 들여다 볼 것이다. 그는 불가능에 도전한 ‘생각하는 불도저’였다. 이런 그의 머리를 창의성을 설명하는 비판적 사고 이론과 하버드대 교육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가 주장한 다중지능이론(multiple intelligence theory)을 끌어와 살펴볼 것이다. 제4

절에서는 ‘현대’라는 고정된 메타포에 갇힌 ‘아산’이라는 텍스트를 해체하는 실험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의 정치철학과 역사의식이 이데올로기의 폐쇄성이나 체제의 경직성, 그리고 이론의 교조성을 훌쩍 뛰어넘어 얼마나 진보적이고 실천적인 전위적 실험정신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사회 철학적 관점에서 설명해보겠다.

주요어 : 아산의 생철학, 도전정신, 오바마, 다중지능, 역발상의 한류리더십

들어가는 말

기성의 관념과 형식을 송두리째 깬 아산은 ‘20세기 최고의 전위예술가’였다. 1998년 6월 이루어진 그의 소떼 방북은 겨레의 가슴에 빗장을 걸어내고 자유 이념을 진보시킨 대담한 ‘이성의 간지’로 세계시민을 감동시켰다. 어릴 적 가난이 싫어 소 판돈 70원을 들고 몰래 가출한 그가 빛을 갠 마음으로 1001마리의 소를 앞세우고 철의 장막이 드리워진 DMZ를 도보로 넘는 순간, 그것은 개인의 성장사를 넘어 헤겔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자유 의식의 보편적 진보’를 위한 행진이자 전 세계 유일한 이념적 장벽을 초극하는 퍼포먼스였다. 고대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 정복에 앞서 고르디우스왕의 마차를 묶고 있던 매듭을 대담하게 끊어 버렸듯이, 그는 IMF 외환위기로 침울한 국론을 순식간에 반전시키고 피로 얼룩진 남북분단의 비극을 과감히 청산하는 화해와 평화의 이벤트를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꽃피웠던 것이다. 프랑스의 문명비평가 기소르망은 이를 “20세기 마지막 전위예술”로 표현했지만, 또한 그것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넘어 8000만 한민족의 가슴을 진하게 감동시키고 인류사회를 주목시킨 ‘최고의 전위예술’이었다.

니체가 “창조라는 유희를 위해서는 성스러운 긍정이 필요”¹하다고 말했듯이, 아산은 ‘힘에의 의지(Wille zur Macht)’와 긍정의 실천가였다. 아산에게 있어 ‘힘에의 의지’는 부나 성공을 뜻하기보다 삶에 대한 환희였기에 환원적이기보다 내재적이었으며, 그런

¹ F. 니체(2006), 144쪽.

의미에서 종속되어 있지 않은 자기 긍정이었다.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 ‘반드시 된다’는 확신 90%에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로 완벽한 100%를 채우지, 안 될 수도 있다는 회의나 불안은 단 1%도 끼워 넣지 않는다.”² 수많은 일화가 자기 긍정과 확신에 찬 그의 창조적 역발상을 증언하지만, 오늘날의 현대중공업을 탄생시킨 ‘현대조선소’ 건설 일화는 백미다. 영국 A&P 애플도어사의 롱바툼 회장에게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 한 장만으로 버클레이즈 은행에 차관 주선과 26만 톤짜리 배 두 척을 수주한 그의 기발하고 영똥한 착상은 단순한 비즈니스 협상이 아니라 자기 긍정의 철학이자 영역전이적인 발상의 전환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희망이 인생에서 성취보다 값지다. “꿈을 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시작하라.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 능력,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³고 괴테가 말한 것은 아산에 대한 예언이었다. 해방이후 맨손으로 그가 이룬 모든 사업은 한국 현대 산업사의 거대한 창작이자 한국식 산업혁명에 대한 고백이었다. 아산은 소망하는 기업을 일으켰을 때, 또한 그 소망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옮겨간 생철학적인 도전 정신의 소유자였다. 창조성은 열정에서 생겨나 다시 창조로 회귀하기에, 아산이 실행한 열정적 사고의 질서는 야망을 문화로 만들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이시켰다. 어느 시대에서나 어떤 사회에서도, 니체의 말대로, 위대함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아산이 발휘했던 불사조 같은 열정은 시대정신에 방향을 제시했으며, 앞으로도 항상 새롭게 한류리더십으로 소생할 것이다.

이렇게, 기업가이기 이전에 시대정신의 개척자였던 아산의 치열한 삶과 생애 정신을 인문학적 창조성과 한류리더십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 글은 다음 내용을 다룰 것이다. 우선, 제1절에서는 20세기를 살았던 아산의 도전적 삶을 21세기의 상징적 역사를 새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연관지워 살펴볼 것이다. 취임식에서 “Yes, we can”을 강조했다 오바마의 정치철학은 세기와 대륙을 넘어 아산 정신과 상당 부분 맥을 같이 한다. 오바마가 ‘한국을 배우자’고 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제2절에서는 아산의 생철학을 노동에 대한 그의 이해 속에서 살펴보겠다. 아산은 막노동, 농업노동, 상업노동, 공업노

² 정주영(2011), 54쪽.

³ 윤순식(2009), 52쪽.

동 등 거의 모든 형태의 노동을 종합적으로 다 경험한 인물이다. 그에게 노동은 단순히 몸을 쓰고 일하는 고된 활동의 의미를 넘어, 자신을 깨닫게 하고 사회를 체험하며, 창업을 통해 자신의 땀을 민족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나아가 삶의 역능으로 고양시키는 변증법적인 지양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제3절에서는 아산의 ‘생각하고 계산하고 예측하는, 성능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머리’를 한번 들여다 볼 것이다. 그는 불가능에 도전한 ‘생각하는 불도저’였다. 이런 그의 머리를 창의성을 설명하는 비판적 사고 이론과 하버드대 교육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가 주장한 다중지능이론(multiple intelligence theory)을 끌어와 살펴볼 것이다. 제4절에서는 ‘현대’라는 고정된 메타포에 갇힌 ‘아산’이라는 텍스트를 해체하는 실험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의 정치철학과 역사의식이 이데올로기의 폐쇄성이나 체제의 경직성, 그리고 이론의 교조성을 훌쩍 뛰어넘어 얼마나 진보적이고 실천적인 전위적 실험정신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사회 철학적 관점에서 설명해보겠다.

1. 아산과 오바마: “Yes, we can”의 도전정신

스스로를 노동자라 불렀던 긍정과 확신의 기업가 아산은 미합중국 역사 232년 이래 최초의 유색 인종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와 중요하게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긍정의 철학이며, 두 번째는 도전정신이고, 셋째는 특별한 즉자대자적인 애국심이다. 두 사람의 공통점에 대한 분석은 20세기 후반의 시대정신과 21세기 세계정신을 이어주는 면에서 뿐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기적 같은 결실을 거두게 했던 면에서 우리가 귀감으로 삼을 수 있다. 생에 대한 강력한 긍정에서 의지와 용기를 얻고 문제 상황에서 해법을 치열하게 찾아가는 두 사람의 일관된 도전정신은, 젊은이들을 실업과 좌절의 늪에 암울하게 빠트리곤 기성세대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오늘날 해묵어 끓아터진 사회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직관적 예지의 샘이 되고, 또한 지금의 어두운 20대 80으로 갈라진 사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끈끈한 긍정적 연대의 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격변했던 한국현대사의 전환기에서 아산 역시,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의

꿈을 가졌던 인물이었다. 아산의 정치 행보에 대해 여러 비판적인 시각들이 겹쳐지지만 최소한 그는 정치의 목적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공동체의 선을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정치와 정당이 단순히 개인의 이해관계 조화와 집합을 위한 근거가 아니라 공동사회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높은 형태의 운명공동체로 여기고, 마치 그가 경제 영역에서 그랬듯이, 기적을 일구어 내는 뉴딜 정치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나이가 허락지 않아 이루지 못했지만, 만약 그에게 젊음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는 반드시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아산과 오바마 두 사람의 비교는 이상 국가의 한 모습을 갈구했던 아산을 이해하는 프리즘이 된다.

시간을 21세기로 옮겨보자. 2009년 1월 20일 ‘검은 케네디’라 불렸던 버락 오바마가 제44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기초연설을 통해 인종과 국적을 초월한 ‘오바마 열풍’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무명에서 일약 정치스타로 발돋움한 그에게서 미국인들은 ‘링컨의 희망과 케네디의 부활’을 느꼈다고 한다. 왜 오바마는 편견과 차별을 넘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열광시켰을까? 오바마는 1961년 생으로 케냐출신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의 외갓집에서 자랐다. 정체성의 혼란으로 청소년기 한 때 마약에 손을 대기도 했던 그는 옥시덴탈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을 거쳐 하버드 법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 공민권 문제를 주로 다루던 시카고의 한 법률사무소에 근무한다. 2000년 연방 하원선거에서의 패배를 교훈으로 2004년 일리노이주 백인지구에서 70%라는 전대미문의 압도적 득표로 연방 상원에 입성한 그는 2008년 11월 4일 공화당 존 메케인 상원의원의 두 배가 넘는 선거인단을 획득해 미합중국 정치사상 최초의 유색 인종 대통령으로 당선한다. 링컨이 노예해방을 선언한지 145년 만의 일이다.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 연설 주제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Yes, we can.)”라는 긍정의 메시지였다.⁴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던 두개의 전쟁과 더불어, 대공황 이래 80년 만에 맞은 최악의 금융위기 속에서 몸부림쳤던 미국 국민들에게 확신에 찬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 자신감과 재기의 의지를 불태우게 했던 명연설이었다. 미국은 독립혁명 이후 남북전쟁의 희생을 치루면서도 노예제를 던고 자유를 쟁취했다.

⁴ 오바마(2009), 82쪽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과잉생산으로 인한 미증유의 대공황을 힘겹게 이겨내어 일자리를 만들고 아메리칸 드림이 꽃 필 수 있게 했으며, 차별과 압제가 없는 자유로운 정치질서의 확립과 경제 번영을 구가한 이상과 희망의 나라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와 반인륜적 독재에 맞서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We Shall Overcome”을 외쳐 진정한 인권을 법질서와 사회제도에 뿌리내리게 한 자유와 평화 및 평등을 상징하는 국가였다. 21세기 들어 상실된 듯 했던 이런 긍정의 아메리칸 드림을 재현하기 위해 오바마는 “Yes, we can!”의 결연한 정신적 의지와 신념을 열정적으로 구가하여 국민의 가슴에 심금을 울린 것이다.

이제 한강의 기적을 살펴보자. 6·25동란 중이었던 1952년 런던의 「더 타임즈」는 「발취개헌안」으로 유명한 부산 정치 파동을 보도하면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은 전봇대 꼭대기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했지만, 거짓말 같이 한국인들은 ‘장미 숲’을 만들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찾기’ 논쟁⁵을 불러일으킨 이 외신기자의 평가는 전쟁의 참화를 국민의 민도(民度)와 대치시킨 왜곡된 시선이었지만 꽤 오랫동안 한국인과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과 자기 비하를 유행시킨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아산은 「더 타임즈」의 즉자적이고 부정적인 한국 이해를 걷어내고, 피나는 노력과 성실, 그리고 창의력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병진시킨 한국인의 긍정적 의지 표상으로써 자신과 ‘현대’를 자리매김한다. 말하자면, ‘현대’는 세계 산업사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인의 상징적 자기 표상인 것이다.

아산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한때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대에 우리 자신의 자질까지, 본성까지 자학했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처럼 우수한 민족은 없다. 한국의 근로자들이야말로 건설과 조선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장본인들이다.”⁶ 아산은 지난날 우리가 가난했던 책임은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이끌어 나갔던 정치인들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의 편견과 야집, 부패와 독선, 이기심과 지역주의, 그리고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고와 무능력에 있었음을 질타하면서, 사물화된 한국인의 긍정적 자부심을 회복시킨다.

⁵ 한진수 컬럼, 「동아일보」, 1981년 4월 20일.

⁶ 정주영(2011), 160쪽.

아산은 유년기에 다반사로 굶으면서 밥보다 죽을 더 많이 먹고 자랐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비참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았으며, “긍정적인 사고가 행복을 부른다”⁷고 믿었다. 좌절이나 실망하기보다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 그는 항상 ‘현재를 충실히 살 줄 아는…행복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에 갇히기보다는 ‘반드시 해 내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 발전하는 삶’을 걸어갔던 것이다. 그는 청운동집 1층 응접실에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움이 없다’는 뜻의 ‘일근천하무난사(一勤天下無難事)’란 글귀를 걸어놓고, 오며가며 자신을 질차탁마 했다.

다시 오바마로 돌아가 보자. 오프라 윈프리의 권유로 출마를 결심한 오바마가 미국 정치사를 바꾸면서 새롭게 심은 다른 두 가치는 ‘담대한 희망’이란 도전정신과 ‘하나의 국가 미합중국’에 대한 애국심이었다.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기초연설에서 오바마는 “우리는 냉소주의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의 정치에 참가하고 있습니까?”⁸를 물으면서 ‘희망’이라는 말을 무려 11번이나 사용한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의 희망,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의 희망, 담대한 희망!”을 외침으로써 오바마는 이라크전을 둘러싼 국론 분열과 정치적 냉소주의를 극복하며,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와 실업의 고통에 절박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자 했다. 오바마의 이 ‘희망’은 예비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변화’로 옷을 갈아입는다. 예비선거에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Change we can believe in)’를 외쳤고, 본 선거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Changes we need)’를 오바마는 슬로건으로 사용했다.⁹

오바마는 한때 링컨이 미합중국 국민들을 향해 함께 일어서자고 호소했던 바로 그 스프링필드의 옛 주 의사당 건물 앞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고하면서, ‘미국에서 빈곤을 퇴치’하고 ‘건강보험 위기를 해결’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를 만드는 일들이 힘든 선택과 결단이지만 ‘해 낼 수 있다’는 도전의식을 불태운다.¹⁰ 그는 거저 대통령이란 이름을 얻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 출마했음을

7 앞의 책, 407쪽. 이하 410~19 참조.

8 오바마(2009), 47쪽.

9 앞의 책, 146쪽.

10 앞의 책, 148쪽.

호소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여정(improbable quest)’을 담대히 시작했다.¹¹ 2009년 11월 7일 미국 하원은 역사적인 건강보험개혁안(Affordable Health Care Act, HR 3962)을 찬성 220표, 반대 215표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의료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3200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수혜율을 84%에서 95%로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오바마가 정치의 영역에서 도전한 길을, 비록 정치에서는 이루지 못했지만, 오바마에 앞서 아산은 경제에서 개척했다. 아산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경제란 돈이 아니라 한 민족의 생명력에 진취적인 정기를 불어넣어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한다.”¹² 그에게서 기업이란 ‘돈’이 아니라 ‘진취적인 정기’를 모으는 곳이었다. 아산은 “인간의 창의와 노력은 무한하다”고 보았기에 경제를 유한한 재화의 흐름으로 보기보다, 노력과 창의 의 진취적 융합이자 의지와 표상의 창조적 종합으로 보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 그에게서 경제 활동은 생에 대한 도전적 찬미이자 겨레 전체의 삶을 향한 일반의지의 역동적 표상이었던 것이다.

아산은 ‘운’을 ‘때’라고 해석한다. ‘때’는 ‘시간’과 다르다. ‘시간’이 물리적인 것이라면, ‘때’는 유기적으로 ‘숙성된 시간’ 곧 ‘시숙(時熟)’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인간의 치열한 의지와 피나는 노동이 외적 조건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체험 영역으로서의 변증법적 시간이자 도전의 절대 순간인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운’이 실패와 성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스스로 좋은 운, 나쁜 운을 만들어내는 것”일 따름이다. ‘운’이 기다림을 뜻한다면, ‘때’는 만드는 것으로 결단과 감행의 도전정신으로 이어진다. 이를 그는 “유지자사경성(有志者事竟成: 뜻이 강하고 굳은 사람은 어떤 난관에 봉착해도 기어코 자신이 마음먹었던 일을 성취하고야 만다)”이라고 표현한다.¹³

아산과 오바마 두 사람의 이런 도전정신은 애국심으로 이어진다. 두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애국심을 바탕으로 바꾸어 낼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our unyielding faith - that in the face of impossible odds, people who love their country can change it.)’¹⁴을

¹¹ 앞의 책, 156쪽.

¹² 정주영(2011), 359쪽.

¹³ 앞의 책, 414쪽 참조.

¹⁴ 오바마(2009), 142쪽.

공유한다. 오바마는 “민주당의 미국과 공화당의 미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미합중국이 있을 뿐”이며, “흑인의 미국, 백인의 미국, 라틴계 미국, 아시아계 미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미합중국이 존재할 뿐”임을 역설함으로써 대통령의 길을 걷게 되었다.¹⁵

사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 이래 대부분 공동체란 인종적·민족적 단일성을 전제로 했다. 말하자면, 자유로운 개개인은 공동체 구성에서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같은 민족끼리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대체로 ‘한 민족, 한 국가(one people, one state)’라는 공식이 존중되었던 것이다. 근대 계몽주의 시대 루소가 꿈꾼 공화국도 이런 의미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작은 공동체로서의 국가였다. 그렇지만, 자연사적인 관점에서는 민족적, 인종적 분포와 국경이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민족이나 인종이 분산되어 한 울타리 내에 공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시 말해, 전제적 권력이나 왕권의 지배 아래 ‘한 국가, 많은 민족(one state, many peoples)’의 형태를 취했던 것이다. 그래서 다원주의는 대체로 전제 왕권이나 제국적 정권 아래서만 실현 가능했다. 미합중국은 이런 자연사적인 등식을 바꾸어, 다원성이 자유와 민주 이념에 배치되지 않게 만든 인류 최초의 실험국가에 해당한다.

그런데 다원적 공동체성은 일반적으로 귀속감이나 애착심에 약점이 있기에 미국에서의 애국주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 오바마가 강조한 미국의 애국심은 민족감정에 직접 맞닿아 있는 즉자태로서의 애국심도 아니고 또한 자신에게 돌아오는 반대급부를 계산한 대자적 애국심과도 달리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 대한 숭고한 인식과 그 이념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가치와 의무를 인식하는 즉자대자적(an und für sich)¹⁶인 애국심이다. 헤겔이 『법철학강요』¹⁷에서 국가를 도덕적 이상의 최고 실현 형태로 보았

¹⁵ 앞의 책, 45쪽. 2004년 7월 2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행한 바로 이 기조연설을 통해 오바마는 일약 정치 스타로 거듭난다.

¹⁶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즉자대자적(an und für sich)이란 용어를 의식과 주관의 관계에서 사용한다. ‘즉자적’이란 의식 자체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 ‘대자적’이란 의식 외부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이며, ‘즉자대자적’이란 의식이 외부대상에 대한 반성적인 지(知)에 이르는 상태를 뜻한다. Hegel(1952), ‘의식’을 다룬 제1장 참조. 여기서는 ‘민족감정’에만 의존하는 상태를 ‘즉자적’이라, 기업논리에 치중하는 것을 대자적이라 보고 이에 반해 반성적이고 보편적인 인식의 수준을 ‘즉자대자적’으로 표현해 보았다.

¹⁷ 오늘날 흔히 사용하는 ‘법철학’이란 용어는 사실상 헤겔의 이 책에서부터 비롯하며, 여기서 헤겔은 국가를 인륜성의 최고 단계로 끝낸다. Hegel(1979) 참조.

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산의 애국심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즉자태나 대자태를 넘어 즉자대자적인 자기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아산은 치부에 눈이 어두운 졸부가 아니었으며, 또한 투기와 유착, 편법과 기만, 돈놀이와 강탈을 일삼는 재력가도 아니었다. 기업은 이익을 목표로 하지만 그는 또한 기업이익을 국익보다 앞세우는 편협한 자본가가 아니었다. 아산은 “풍요로운 국가와 사회 건설에 기여코자 하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기업인”¹⁸이었으며, 또한 근면과 성실, 그리고 신용을 담보로 “공공의 이익과 사유 재산 제도를 기반으로 한 자유 기업주의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과제로 삼았던 노동 기업가였다. 그는 돈을 쉽게 벌 수 있어서 한국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와 현대는 정치 변혁이 있을 때마다 이른바 ‘인민재판 제1호’로 통과의례처럼 수난을 겪었지만, 동네북이 되어도 남들처럼 못난 민족의 비열한 근성이라고 비난과 욕설을 퍼붓지 않았다.¹⁹ 정권의 호도에도 오히려 그는 눈을 해외로 돌려, “자원도 자본도 없는 한국이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그토록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는가”를 묻는 외국 기업가나 경제 전문가들의 질문에 간단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근면한 민족인 우리 국민이 이룬 업적”²⁰이라고 답한다.

아산은 기업가였지만 절대로 ‘돈’을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는 자유주의자였고, 노동을 하늘처럼 섬기고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같이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발전의 동력으로 평가하는 민주주의자였다. 아산은 오히려 돈으로 생색내고 돈을 자랑삼는 사람의 인격은 보잘 것 없이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는 또한 어리석은 객기나 보기 싫은 오만도 부리지 않았다. 아산은 “위대한 사회는 평등 의식 위에 세워지는 법”²¹이라 보았기에,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일을 좋아하고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 나갈 줄 아는 우리 민족의 근면성과 창의력에서 애국심의 근원과 국가 발전의 진정한 동력을 발견한다. 기업사로 따지면 휴전이후 몇 십 년 밖에 되지 않는 대한민국 기업들은 산업혁명

¹⁸ 정주영(2011), 365쪽. 이하 382쪽 참조.

¹⁹ 현대가 겪은 고초는 ‘5·16’직후 반혁명 지원 모함에서부터 70년대 중반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부정 축재와 탈세 등의 죄목으로 수난을 겪었다고 한다. 앞의 책, 제8장 ‘애국애족의 길’ 참조.

²⁰ 앞의 책, 357쪽.

²¹ 앞의 책, 361~2 참조.

이후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서구 선진국이나 명치유신 이후 150년 넘는 기업사를 갖는 일본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6·25 동란 이후 60달러 국민소득을 1995년 1만 불로 성장시킨 한국의 기업인들을 대표해 그는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애국애족하지 않는 기업가는 없다”²²고 장담한다.

한국인의 잠재력과 헌신적인 연대감에 대한 아산의 평가를 주베일 산업향에서 크레인을 다루었던 브라운 앤드 루트 사의 영국인 기사는 시로서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우리가 성별 때 싱글벙글 웃으며,
우리가 지쳤을 때 벌떡 일어서며,
우리가 잠잘 때 소란 법석을 떠네.
어느 ‘브라운 앤드 루트’ 사람의 묘비명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네.
여기 잠들어 있는 사람은 천하의 바보.
‘현다이’ 사람들과 어울려
‘현다이’ 사람들처럼 일하다가
스스로 죽음을 불렀다.

목숨 건 사람들처럼 죽을 등 살 똥 일한 한국인의 부지런함과 저돌성이 결코 어리석은 광기가 아니다. 그들의 노고를 거름으로 만들어진 오늘의 한국이 집단이기주의나 부패로 무너질 수는 없다.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고 기업이 없으면 일터도 없다.”²³

이런 관점에서 오바마의 각별한 한국예찬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주한 미국대사로 한국계 김성을 임명했고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재선임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을 뿐 아니라, 다트머스대학교의 김용 총장까지 세계은행 총재로 임명했다. 국제적 역학관계를 고려하고 세계은행의 기능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겠지만 단순히 사무적인 배치를 넘어섰다. 그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부터 한국을 배우자고 선도했으며, 아프리카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도 한국 예찬을 아끼지 않았다.²⁴ 오바마가 한국을 사랑하는 진짜

²² 앞의 책, 371쪽.

²³ 앞의 책, 324~5쪽.

이유는 후진국에 적용한 미국식 자본주의의 유일한 성공모델로서의 홍보가치에서라기 보다, 척박한 환경에도 결코 굴하지 않은 한국인의 ‘긍정의지’와 한강의 기적을 일군 ‘도전정신’ 그리고 하나로 뭉쳐 빛나는 ‘애국심’ 때문이었다. 바로 이런 한국인의 신화적인 정신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산과 그의 작품 현대이며, 오바마가 진정 배우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아산 정신이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들이 각축을 벌이는 미국무대에서 현대자동차가 뿌리를 내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아산의 생철학과 창조적 노동 변증법

창조라는 유희를 위해서는 성스러운 긍정이 필요하다.²⁵

일찍이 근대 독일의 관념론을 집대성한 철학자 헤겔(G. W. F. Hegel)은 “세계에서의 어떠한 위대한 것도 정열 없이는 성취되지 않았다”²⁶고 말했다. 긍정은 시련을 의지로 바꾸고, 난관을 지혜로 성장시킨다. 아산은 수많은 시련과 난관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이것은 나한테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주어진 시련’이라고 항상 긍정했다. 그의 인생은 줄곧 “더 하려야 더 할 게 없는 마지막까지의 최선”의 점철²⁷이었다. 아산은 농사일에서부터 막노동과 허드레 일에 이르기까지 소위 말해 몸을 쓰는 고된 일들을 마다 않고 찾아나서 결국 일가를 이룬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어린 나이에 소녀물주기서부터 시작한 농사일로 잔뼈가 굵었으며, 가출이후 안암동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 신축 공사장의 인부, 풍전엿공장(현 동양제과)에서의 잡역부, 쌀가게 배달원 등, 정말 ‘더 하려야 더 할 게 없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다하는 최선’을 자신의 인생의 기본으로 삼고 일했다. 이어 자동차수리업을 한 것까지 합치면, 그는 막노동, 농업노동, 상업노동, 공업노동 등 거의 모든 형태의 노동을 다 경험한 것이다.

²⁴ 임종건(2012), 149-152쪽 참조.

²⁵ 니체(2006), 144쪽.

²⁶ Hegel(1986), s. 38.

²⁷ 정주영(2011), 41~2, 416쪽.

필자는 아산이 이렇게 노동의 모든 형태에 대한 종합적 경험을 가졌던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산에게 노동은 단순히 몸을 쓰고 일하는 고된 활동의 의미를 넘어, 자신을 깨닫게 하고 사회를 체험하며, 창업을 통해 자신의 땀을 민족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나아가 삶의 역능으로 고양시키는 변증법적인 지양의 계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서양 사상의 원류를 이루는 고대 희랍적 전통에서는 포이에시스(*ποίησις*)라 불렸던 제작활동으로서의 노동이, 소재에 의존하며 목적에 따라서 형상을 소재 속에 들여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은 비자유민의 직분에 속하기에, 공공적인 정치, 사회적 마당에서 공적 문제에 관여하는 자유민의 실천 곧 프락시스(*πραξις*)와는 엄연히 다른 저열한 활동이었다.

노동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킨 땅은 스코틀랜드였다. 자신을 도덕철학자라 생각했던 아담 스미스는 1776년에 출간한 『국부론』에서 “한 나라 국민의 연간 노동은 그들이 연간 소비하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 전부를 공급하는 원천”이라고 천명한다. 노동을 부의 원천으로 파악한 아담 스미스의 시각에 새로운 지평과 철학적 인식을 보탠 것은 단연 헤겔이었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의 ‘주인과 노예’ 장에서 인정투쟁을 거쳐 노예적인 노동이 오히려 인륜적 공동체 속에서의 의식의 자립과 완성된 자유를 근원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임을 강조했다.²⁸ 그렇다! 아산에게 노동은 고된 노예의 짐이 아니라 ‘자유’의 체험이었다. 그에게서 노동은 역능의 상징이자 창조의 기호였고, 실천적 지혜를 통한 깨달음의 처소였다.

아산에게 노동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먼저, 그에게서 노동은 니체가 『짜라투스트라』에서 말했던 현존재에 대한 긍정, 곧 ‘운명에 대한 사랑(amor fati)’의 다른 표현이었다. 아산은 사주팔자를 안 믿었을 뿐 아니라 ‘운’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했다. 주역의 패사에 대한 상수학적인 믿음이나 서양의 경우 오이디푸스 신화 이래 인간의 삶을 관장한다고 여겨지던, 정해진 운명에 대해 아산의 생각은 달랐다. 주역의 마지막 패사가 미제(未濟)로 끝나듯이 아산은 심혈을 기울이는 최선의 노력으로 도달한 선택과 의지적 결단이 운명의 진정한 본질이라 생각한다. 자연에 밤과 낮이 있고 음지와 양지가 있듯이 아산은 모든 일에는 항상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하며 그리고 이것이

²⁸ Hegel(1952), ‘자기의식을 다룬 제2장 참조.

마치 밤과 낮이 바뀌듯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지, 어떤 정해진 해(年)와 달(月) 일(日)과 시(時)가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년센스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는 ‘운’을 ‘때’로 해석하며, 따라서 ‘노력’은 곧 ‘좋은 때’를 찾는 향상의 ‘노동’이었고, ‘나쁜 때’를 맞아서 는 비켜가고 넘어서는 치열한 ‘의지’였다. 유토피아는 삶을 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오롯이 담겨 있다는 단순한 진리가 아산의 깨달음 이었다.

아산은 이렇게 말한다. “한강의 기적’ 속에 ‘기적’은 없다. 다만 성실하고 지혜로운 노동이 있을 뿐이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사람의 기업인이자 성실한 노동자로서 이 나라의 비약적 발전에 한몫을 다한 것에 대해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있다.” “일에는 늙음이 없다. 최상의 노동자에게는 새로운 일감과 순수한 정열이 있을 뿐이다.”²⁹ 부정적 이고 비관적인 사고는 스스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달힌 철문’일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 까지 힘들게 만드는 파괴적인 효과를 낳는다. 오히려 아산에게 역경은 발상의 밑천이자 도전의 기호였고, 신라 고승 원효대사(元曉大師)의 일화로 유명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에³⁰ 해당하는 깨달음의 처소로서의 노동의 신호였다. 아산은 인천부두 막노동자 생활을 하다 얻은 ‘빈대의 교훈’을 자신의 ‘노동철학’으로 평생 간직했던 것이다.

둘째, 아산에게서 노동은 ‘시간’이었다. 대학을 다닌 것도, 설법을 들은 것도 아니었지만 아산은 노동에서 ‘시간존재론’을 발견한다. “나는 인생의 성공 혹은 실패를 잡고 있는 것은 시간과 행동이라고 생각한다.”³¹ 아산에게서 시간은 ‘행동하는 시간’, ‘창조 하는 시간’이었으며, 이 행동하는 시간의 지속을 통해 혁명도, 역사도, 영웅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존경을 받는 많은 일을 이룬 “그 사람들이라고 두 생애, 세 생애동안 이룬 일들이 아니다. 한 생애에 그만한 일들을 해놓고 떠난 것이다.” 아산의 ‘시간’은

29 정주영(2011), 430~1쪽

30 원효대사가 불법(佛法)을 공부하기 위해 당(唐)나라로 유학을 가는 길에 해가 저물어 잠자리로 동굴을 찾았다. 한 밤에 목이 말라 잠결에 물을 찾아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그곳은 동굴이 아니라 무덤이었고, 잠결에 달게 마셨던 물은 해골바가지에 고인 구역질나는 물이었다. 밤에 포근하게 잠을 청한 자리가 낮에는 무서운 무덤이었고, 같은 물이 밤에는 목을 시원하게 축여주었지만 낮에는 해골에 고인 끈적한 썩은 물이었다는 사실에, 원효대사는 그 순간 크게 깨닫고 당나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렸다. 대승불교의 경전인 화엄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所造)’가 곁에 있기에 불법을 찾아 머나먼 당나라까지 갈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이후 한국에 대승불교를 꽃피운 기막힌 사연이다.

31 정주영(2011), 74쪽. 이하 80쪽 참조.

슈페터(Joseph A. Schumpeter)가 말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로서의 혁신 과정이며, 시간에 대한 이런 의미 부여는 인간 존재에 대한 실존적 이해와 통한다.

20세기 초중반의 실존주의를 이끌어 나갔던 하이데거(M. Heidegger)는 그의 주저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은 한갓 대상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존재자(das Vorhandene)’가 아니며, 인간이야말로 스스로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실존(Existenz)’³²하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하이데거는 전통 형이상학의 존재이해에 물음을 제기하면서, 세계-내-존재로서의 현존재의 존재의미를 ‘시간성’이라 말한다. 이 근원적 시간성을 망각할 때 우리는 존재자들에 문혀 비본래적인 삶을 영위하게 되며, 따라서 존재 망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존재의 시간성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아산은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언제나 내 앞에 놓여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었다.”³³ 아산의 ‘시간’은 하이데거가 말한 ‘기투(企投, Entwurf)’된 현존재와 같다. 그래서 아산의 삶은 “나이 대신 ‘시간’만이 있었던 일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일찍이 생철학의 선구자였던 짐멜(G. Simmel)도 아산처럼 생에 있어서 시간성(時間性)을 중요시하여, 시간이 생 자체의 구체적인 존재형식이라 규정한 바 있다. 짐멜은 ‘생’의 본질을 단순히 끊임없는 생성 자체라기보다, 항시 그 스스로에 한계와 개성적인 형식을 부여하고, 나아가 그 형식을 생의 흐름 속에 타파하고 해소하는 초월, 곧 ‘생의 자기초월(自己超越, Transzendenz des Lebens bei sich selbst)’³⁴로 보았다. 다시 말해, 생이란 한정된 자기의 형식을 무단히 초월해 가는 이른바 ‘보다 많은 생(mehr Leben)’이면서, 동시에 창조적으로 자기에 어떤 형식을 부여하는 ‘생 이상의 것(mehr als Leben)’이라는 것이다. 격변의 시대를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아간 아산에게 ‘생 이상의 보다 많은 생’이란 표현보다 더 적합한 말이 과연 또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아산의 ‘생의 의지(意志)’는 노동에 대한 세 번째 의미, 곧 ‘생의 자기초월’을 이끌어간 ‘체험’에 대한 언급에서도 드러난다. 아산을 회고할 때, “해보거나 했어?”라는 말이 유명하다. “『대학』에 ‘치지재격물(致知在格物)’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지식

³² Heidegger(1927), s. 42. 이하 ss. 329, 426 참조.

³³ 정주영(2011), 199쪽.

³⁴ 짐멜은 이렇게 말한다. “생은 중단없는 흐름인 동시에……한정된 형성물의 한계성을 지속적으로 넘어선다. 이것이 생의 본질을 이루는 구조다.” Simmel(1922), s. 13 참조. 이하는 ss. 20~23 참조.

으로 올바른 앞에 이르자면, 사물에 직접 부딪혀 그 속에 있는 가치를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참다운 지식은 직접 부딪혀 체험으로 얻는 것이며, 그래야만 가치를 제대로 아는 법이다.”³⁵ 아산에게서 ‘체험’은 자기의식적 노동이자 실천 이성이며, ‘생의 내화(內化)’였다. 그래서 아산은 수많은 어려움과 예측불허의 미지수,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이 복병처럼 숨어있는 건설업을 사랑했던 것 같다. “모험적인 정보, 모험적인 노력, 모험적인 용기가 필수”인 “건설업이야말로 인간으로서 모든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는 업종”이었기 때문이다.

‘직접 부딪혀 체험’으로 터득하고 성취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도 오늘날의 현대중공업의 전신인 현대조선의 창업 일화일 것이다. 현대가 조선업에 무슨 경험이 있느냐 만만찮은 회의론을 조선업자가 아닌 건설업자의 관점에서 대수롭지 않게 돌파한 그의 발목을 잡은 문제는 정작, 건설에 필요한 차관도입 건이었다. 유대인 브로커의 농간을 뛰어넘어 간신히 영국 5대 은행의 하나였던 버클레이즈 은행의 문을 두드렸지만, 당시로는 1만 7천 톤급 선박 건조 경험 밖에 없는 한국 기술을 영국은행은 믿지 않았다. 이에 아산은 A&P 애플도어사의 롱바툼 회장을 만나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보이고 300년이나 앞섰던 우리의 조선 기술 잠재력을 확신시킴으로써 결국 그리스 해운업자 리바노스로부터 26만 톤짜리 배 두 척까지를 수주하게 되고, 이로써 차관도입과 70만 톤급 드라이 도크 2기를 갖춘 국제규모 조선소 기공식에 이르게 된다. 허허벌판인 황량한 모래사장 사진과 거북선 지폐 한 장을 들고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아산의 이런 기발한 비즈니스 협상은 발상 전환적 자기 긍정과, 건설을 통해 체득한 직관적 체험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인간의 정신력이라는 것은 계량할 수가 없는 무한한 힘을 가진 것이며, 모든 일의 성패가, 국가의 흥망이 결국은 그 집단을 이루는 사람들의 정신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나는 조선소를 지으면서 절절하게 느끼고 배웠다.³⁶

아산은 자동차 한 대, 배 한 척 만들어본 경험도 없이 자동차 산업과 조선

³⁵ 정주영(2011), 158쪽.

³⁶ 앞의 책, 184쪽

산업에 뛰어들어 남보다 각고의 “순전히 노력만으로 훌륭히 성공”시킨 실천적 ‘역사 이성’의 선각자였다. 아산은 일본이나 선진국의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의 기업 역사를 비교하면서,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속도로는 영원히 뒤떨어진 1백 년의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다”³⁷는 단순명쾌한 결론을 통해 “열배 스무 배 더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 불리한 여건을 극복”해낸다. 이런 그의 성격으로 인해 때론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지만, 한순간도 정지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 집중하며 찰나도 놓치지 않았던 아산이야말로 한계상황 속에서 현존재를 직시한 그 시대의 진정한 실천적 실존주의자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생에 대한 아산의 이런 의지를 하이데거식 니체 해석으로 말하면 “의지는 자기 자신으로의 결단이다.”³⁸ ‘더 하려야 더 할 게 없는 마지막까지의 최선’으로 점철된 아산의 생애는 바로 이런 현존재의 실존적 자기 결단으로서의 생 의지로 점철된 생애였다.

3. ‘생각하는 불도저’와 다중지능

내 평생은…불가능에의 도전, 그것을 가능으로 뒤집은 기록의 점철이라고 할 수 있다.³⁹

아산은 ‘생각하는 불도저’였다. 그는 장애를 피해가기보다 정면 돌파를 선호했고, 우직한 불도저처럼 무섭게 밀어붙이면서 ‘현대’를 일구었기에 그에게는 ‘불도저’라는 별명이 따라 다녔다. 대개 ‘불도저’가 사람에 비유될 때는 통상 단순무식형 추진력이나 불통형 지도력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길이 없으면 길을 내되, 이런 저런 복잡한 이견들을 오징어처럼 납작하게 밀어버리면서 오로지 목표만을 향해 정진하는 그런 딱 막힌 고집불통이 연상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산식 ‘불도저’는 좀 많이

37 앞의 책, 82쪽. 이하158쪽 참조.

38 Heidegger(1985), s. 48.

39 정주영(2011), 427쪽.

다르다. 그 자신의 표현을 빌어보면 “나는 내 ‘불도저’에 생각하고 계산하고 예측하는, 성능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머리라는 것을 달고 남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열심히 생각하고, 궁리하고, 노력하면서 밀어붙였다.”⁴⁰

이제 아산의 그 ‘생각하고 계산하고 예측하는, 성능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머리’를 한번 드러다 보도록 하자. 사실 아산이 IQ 검사를 했을 리도 없고, 적성검사나 인성검사를 받았을 리도 만무하다. 따라서 그의 ‘나쁘지 않은 머리’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어쩌면 아산은 자신의 업적 자체가 ‘머리’의 방증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업적과 머리를 방정식으로 묶기에는 너무 우연적 변수가 많다. 그렇지만 자신의 업적에 대한 그의 ‘서사’에는 ‘머리’를 들여다 보여주는 제법 많은 일화가 남아 있다. 항상 역발상을 통해 사업을 일구어 온 아산은 자신을 이렇게 평가한다.

내가 학식이 없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학식이 없다고 해서 생각도 머리로 이해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한 인간이 가진 자질과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학교에서 배운 학식의 부피나 깊이만으로 내린다는 것은 크나큰 오류이다.

나는 어떤 일에도 결코 덮어놓고 덤벼든 적이 없다. 학식은 없지만 그 대신 남보다 더 열심히 생각하는 머리가 있고, 남보다 치밀한 계산 능력이 있으며, 남보다 적극적인 모험심과 용기와 신념이 나에게는 있다.⁴¹

아산은 1910년 11월 강원도 통천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소학교(오늘날의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흉년에 찌든 농촌의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 소 판 돈 70원을 훔쳐들고 서울로 올라와 덕수궁 옆 경성실천부기학원을 다닌 것이 교육받은 전부다. 일제하에서는 소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형편의 사람도 만치 않았음을 감안하면 당시로서는 그의 학력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중등교육과 고등교육기관도 있었던 가운데 소학교만으로 그친 것은 아산의 말대로 학식이 많은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하지만 아산 자신도 강조하듯이 학식이 모자라는 것이 지능이 못미치는

⁴⁰ 앞의 책, 237쪽.

⁴¹ 앞의 책, 233-4쪽.

것은 아니다.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자면, 마치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듯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현대’라는 대 그룹을 짧은 시간에 일군 아산의 머리를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뛰어 든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한계 상황들을 극복하며 엄청난 실존적 창조력을 발휘함으로써 오늘의 ‘현대’를 만들었다. 중요한 사업 시도의 대부분은 말하자면, 호머의 『오딧세이』에서나 볼 법한 불가능해 보이는 모험으로 점철된다. 그래서 아산을 설명하는 데서 근면과 노력 그리고 시운(時運)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얼마 전 하버드대 교육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가 주장한 다중지능이론(multiple intelligence theory)이 우리 사회에 회자된 바 있다. 일찍이 1890년대에 인간지능에 대한 연구가 프랑스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비네(Alfred Binet)에 의해 시작된 이래, 이것이 미국에서 적극 수용되어 오늘날의 IQ검사와 각종 학력검사 방법으로 발전되어 인간의 학업성취 잠재력을 파악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런데 가드너는 1983년에 발간한 『마음의 틀(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이란 책에서 IQ에 대한 이런 전통적 믿음에 의심을 제기하면서, 뇌 일부 기능에 장애가 있어 정상 지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다른 면에서 특이하게 재능을 발휘하는 여러 환자들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의 지적 능력이 8가지 층위로 구분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⁴² 이런 연구를 토대로 가드너는 “지능은 한 문화권 혹은 여러 문화권에서 가치있게 인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산물을 창조해 내는 능력”⁴³이라고 정의 내린다.

지능에 대한 이런 가드너의 정의를 원용하면, 아산은 학력은 모자라도 우리 사회의 시대적 문제를 가장 탁월하게 해결한 몇 안 되는 높은 지능의 소유자였다. 가드너는 아산에 대한 이와 같은 필자의 평가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주장을 최근의 책 『열정과 기질』⁴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피력한다. 이 책에서 가드너는 일곱 명의 거장들 즉,

⁴² 가드너는 이 책에서 원래는 7가지 지능을 구분했었지만, 나중에 자연지능을 추가했고, 최근에는 실존지능이 후보로 올라왔다. 7가지 지능이란 음악(Musical-rhythmic and harmonic)지능, 시각공간(Visual-spatial)지능, 언어(Verbal-linguistic) 지능, 논리수리(Logical-mathematical)지능, 신체운동(Bodily-kinesthetic)지능, 대인(Interpersonal)지능, 성찰(Intrapersonal) 지능이며, 이후 추가된 지능은 자연(Naturalistic)지능과 실존(Existential)지능이다. Gardner(2006) 참조.

⁴³ 가드너(1996), 10쪽.

심리학자 프로이트(Freud), 물리학자 아인슈타인(Einstein), 화가 피카소(Picasso), 음악가 스트라빈스키(Stravinsky), 문인 엘리엇(Eliot), 무용가 그레이엄(Graham), 그리고 정치인 간디(Ghandi) 등 각 분야에서 특별한 창조적 업적을 남긴 거장들을 연구함으로써 ‘10년의 법칙’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한 분야에서 창조적인 도약을 이루려면 그 분야에서 통용되는 전문지식을 습득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정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는 창조성의 10년 규칙을 발견했다. 일곱 명의 창조적인 인물들은 물론 분야마다 약간씩 기간은 달라도 대략 10년을 사이에 두고 창조적인 도약을 이루었다. 인지 심리학 계통의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한 사람이 어느 분야를 기본적으로 통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대략 10년 정도이다.⁴⁵

모차르트의 진정한 작품이라 부를 수 있는 ‘협주곡 9번’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음악 수업을 받고 작곡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흐른 그의 나이 스무 살을 넘는 시점에 만들어졌다. 아산 역시 해방과 동란의 우여곡절을 겪었던 한국인 모두와 같이 어찌 보면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해방이후 일련의 시련과 난관을 거쳐 오랜 기간 동안 치열한 노력을 통해 도약하게 된다. 아산이 1946년 4월 서울시 중구 초동에 ‘현대자동차공업사’를 벌려서 1971년 2월 ‘현대그룹’ 회장에 취임하기까지는 대략 25년이 걸린 셈이지만 이 기간 동안 6·25 동란이 있었고 또한 그가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까지를 설립한 것을 감안하면 각 사업 분야에서 본격적인 규모를 만드는 데까지 비슷한 기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10년의 법칙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업적을 이루거나 최고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이상의 집중적인 노력과 정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산은 비단 10년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그와

⁴⁴ 가드너(2004), 640쪽 참조. 가드너의 이 책 원서명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을 더 잘 설명해 주기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H. Gardner, *Creating Minds : An Anatomy of Creativity Seen Through the Lives of Freud, Einstein, Picasso, Stravinsky, Eliot, Graham, and Ghandi*.

⁴⁵ 가드너(2004), 637쪽.

같은 노력과 집중으로 창조한 인물이다. 오늘날의 현대는 아산이 각고의 노력으로 이룩한 비범한 성취였던 것이다.

창조적인 문제해결 역량과 관련한 아산의 비범성은 역경 속에서 그가 터득한 깨달음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아산은 네 번째 가솔로 인천부두 막노동자 생활을 하다 아이러니컬하게 빈대로부터 큰 깨달음을 얻는다.

노동자 합숙소는 밤이면 들끓는 빈대로 잠을 잘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몇 사람이 빈대를 피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밥상 위로 올라가 잤는데, 빈대는 밥상 다리를 타고 기어 올라와 사람을 물었다.

우리는 다시 머리를 짜내어 밥상 네 다리에 물을 담은 양재기를 하나씩 고여놓고 잤다. 그런데 편안한 잠은 하룻가 이틀에서 끝나고 빈대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혔다. 상다리를 타고 기어오르다가 몽땅 양재기 물에 빠져 죽었어야 하는 빈대들이었다.

그런 빈대들이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살아서 우리를 다시 뜯어먹나 불을 켜고 살펴보다가 우리는 다 같이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 밥상 다리를 타고 올라가는게 불가능해진 빈대들이 벽을 타고 까맣게 천장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고는 천장에서 사람 몸을 향해 툭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때 느꼈던 소름끼치는 놀라움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생각했다. ‘하물며 빈대도 목적을 위해서는 저토록 머리를 쓰고 저토록 죽을힘을 다해 노력해서 성공하지 않는가. 나는 빈대가 아닌 사람이다. 빈대한테서도 배울 건 배우자. 인간도 무슨 일에든 절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죽을힘을 다한 노력만 쏟아 붓는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⁴⁶

아산이 스스로 깨닫는 탁월한 반성적 성찰 지능과 그 성찰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실존적 결단력의 구성적 종합을 인생 내도록 발전시켜 나가게 된 것은 빈대가 깨닫게 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교훈에서였다. 원효대사가 탁발을 통하여 아만과 고집을 없애는 수행의 길을 활짝 열었다면, 아산은 보시하는 쪽에서 창업으로 공덕을 쌓는

⁴⁶ 정주영(2011), 41-2쪽. 문단나누기는 필자가 함.

수행의 길을 찾았던 것이다.

사실 창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된 정교한 정의를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전통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정의가 통용된다.⁴⁷ 첫째는 Guilford가⁴⁸ 말한 ‘발산적 사고’(확산적 사고)로서의 창의성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의성하면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런 협의의 창의성이다. Guilford에 따르면, 발산적 사고의 범주에는 유창성(fluency), 융통성(flexibility), 독창성(originality), 정교성(elaborativeness)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 이 때, 유창성이란 생성해낸 아이디어의 수를 말하며, 융통성은 그 아이디어들이 속하는 범주의 다양성을 뜻하고, 독창성이란 남들이 생성해내지 못한 비범한 아이디어를 생산해 내는 역량이며, 정교성이란 떠오른 이런 아이디어를 상세하게 잘 엮어내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한 물건의 용도를 주어진 시간 내에 가능한 한 많이 나열해 볼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대한 반응의 수가 많고(fluent), 다양하고(flexible), 독특하고(original), 정교한(elaborative) 것일수록 창의적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광의의 창의성으로, ‘새로움’과 ‘유용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준거만을 기준으로, 이 둘을 가진 것을 생산해 내는 행동 또는 정신과정 일체를 창의성이라고 부르는 경우다. 이 광의의 창의성은 협의의 창의성에서 말한 독창성에 더해 유용성을 강조하는 면에서 발산적 창의성과 다르지만, 다른 한 편 너무 포괄적이어서 설명적 기능이 제한되며 따라서 아산의 사유 프레임에 대한 맞춤형 직관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런데 세 번째 ‘과정으로서의 창의성’은 좀 다르다. 이는 기존의 정보들을 특정한 요구조건에 맞거나 유용하도록 새롭게 변형하거나 조합하는 창의 역량을 일컬으며, 이런 의미에서 토렌스가 말한 문제해결 역량으로서의 창의성과 통한다.⁴⁹ 물론 새로운 변형이나 조합이 유용해야 하는 면에서 광의의 창의성과도 통하며, 주로 ‘유추에 의한 사고’를 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이런 과정으로서의 창의적 사고의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다. 토렌스는 발산적 사고만으로는 창의성의 모든 측면을 다 함축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창의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는 같은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47 김영체(1999), 3-6쪽.

48 Guilford(1956). pp. 267-293 및 가드너(2004) 59쪽 참조.

49 Torrance(1974), pp. 4~9. Guilford와 Torrance의 창의성에 대한 요약된 논의는 김영정(2005) 및 김영체(1999) 3~10쪽 참조.

창의적 사고에는 발산적 사고에 없는 ‘문제를 재정의(reefinition)하는 능력’과 ‘문제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재정의 하기’란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들여다보고 지각하는 것을 뜻하기에, 재정의 능력은 기능적 고착에서 벗어나 사상의 변형, 재해석 그리고 독특한 해결을 생성해 내는 역량을 말한다. ‘문제에 대한 민감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문’이나 ‘문제’를 제기할 때 그런 것처럼, 통상적으로 느낄 수 없는 괴리나 결손 등을 민감하게 관찰할 줄 아는 역량을 가리킨다. 아산은 이런 의미에서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재정의함으로써 사업의 돌파구를 만들고 창업에 이른 대표적인 기업가였다. 김영정 교수는 이런 토렌스의 논의를 받아들여 철학교과의 비판적 사고교육에서 말하는 이른바 수렴적 창의성을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정리한다.⁵⁰

〈사고력의 7범주〉

← 수리성방향	비판적 사고					→ 예술성방향
Formal Symbolic Thinking 기호적 사고	Analytical Thinking 분석적 사고	Inferential Thinking 추론적 사고	Synthetical Thinking 종합적 사고	Alternative Thinking 대안적 사고	Divergent Thinking 발산적 사고	Material Symbolic Thinking 상징적 사고
	개념적 분석 텍스트 분석	분석적 추론 : 연역 종합적 추론 : 귀납	가설 추리 논리 퍼즐 의사 결정 상황 추리 민감성	관점/발상전환 대안 창안, 시야/시계확장 시각/지평전환 재정의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		
	광의의 논리적 사고				협의의 창의적 사고	
	협의의 논리적 사고		광의의 창의적 사고			

⁵⁰ 김영정(2005) 참조.

이 도표에서 필자가 색상으로 표시한 프레임에서 아산 정신의 특성을 읽을 수 있다. 아산의 수많은 일화가 말해주는 것은 그가 치밀한 분석력과 직관적 추론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종합적이고 대안적인 사고를 전개했던 면에서 실천적인 비판적 사고 곧 프로네시스 창업가였던 것이다. 아산은 누구보다도 깊이 생각하고(**비판적 사고의 심층성**), 역경을 헤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아 잠을 설치고 사경을 넘나들면서도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다각성**), 주어진 불가능에 가까운 사태들을 발상을 전환해 헤쳐 나가거나 지평을 확대하여 대안을 창안(**영역전이성**)한 수렴적 창의성의 진정한 달인이었던 것이다. 아산은 교과서적인 사고방식이 때로는 “곧 고정 관념이며 그것이 우리를 바로로 만드는 함정”⁵¹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 “다중지능의 기본 전제는 인간의 정신 능력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 교육에서는 모든 아이들에게 같은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고 평가한다.”⁵² “교실은 이미 여러 줄, 즉 다중인데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한 줄에만 익숙해 있었다.”. 아산이 깨트리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런 고정관념이었다. 아산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상식에 얽매인 고정 관념의 테두리 속에 갇힌 사람으로부터는 아무런 창의력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내가 믿는 것은 ‘하고자 하는 굳센 의지’를 가졌을 때 발휘되는 인간의 무한한 잠재 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뜻을 모았을 때 분출되는 우리 민족의 엄청난 에너지뿐이다.⁵³

고대 희랍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보편성을 추구하는 이론적 지식인 에피스테메(episteme)와 기술적 지식인 테크네(techne) 그리고 실천적 지식인 프로네시스(phronesis) 세가지 유형을 나눈 바 있다. 이때 프로네시스는 형식적 객관적 지식인 에피스테메와 다르고, 또한 기술로서의 테크네와도 달리 가치판단을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지적 미덕이다. 아산의 실존적 창의성은 그가 가진 탁월한 문제해결 역량으로서의 프로네시스의 힘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⁵¹ 정주영(2011), 236쪽.

⁵² 홍성훈(2009) 29쪽. 이하 30쪽 및 여덟가지 다중 지능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제2장 참조.

⁵³ 정주영(2011), 234쪽.

아산은 자신의 장끼를 이렇게 말한다. “밥풀 한 알만 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씨앗으로 자리잡으면, 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끊임없이 계속 그것을 키워서 머릿속의 생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커다란 일거리로 확대시키는 것이 나의 특기 중에서도 주특기라고 할 수 있다.”⁵⁴ 생각을 키워 현실화시키고 그것을 다시금 커다란 일거리로 만드는 사고-형성-실천 프레임은 아산의 이런 창의적인 실천적 지혜 즉, 프로네시스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에게서 난관은 도약의 힘이고, 장애는 오히려 해결의 열쇠였다.

방법은 찾으면 나오게 되어 있다. 방법이 없다는 것은 방법을 찾으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다. 남들은 5년 걸릴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를 2년 3개월 만에 해낸 것도 ‘남들은 조선소를 지어놓고 난 뒤에 선박 건조를 한다’는 상식의 테두리를 무시하고 내 식대로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⁵⁵

4. 진취적 시대정신과 역발상의 한류리더십

프랑스의 문명비평가 기소르망은 아산의 소떼 방북을 ‘20세기 마지막 전위예술’이라 평가했었다.⁵⁶ 1998년 맞은 미증유의 외환위기로 나라의 근간마저 흔들릴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는 IMF의 반강제적인 충고에 따라 대대적인 재벌개혁에 나섰다. 대기업들은 부채탕감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력 사업 이외의 부문은 그룹간 빅딜로 포기를 종용받았고, 이런 외중에 롯데 신격호 회장은 제일 먼저 사재 1천만 달러 출연을 공표한다. 뒤이어 삼성 이건희 회장 역시 공들였던 자동차 사업을 접고 빚 탕감을 위한 사재 1조원 출연을 발표했으며, 다른 그룹 총수들도 대열에 합류해 나갔다. 하지만 아산은 침묵했다. 혹자는 정치일선에 나갔던 충격 때문이라 짐작했고, 혹자는 시류에 둔감한 고집 때문이라 지탄하는 가운데 아산의 속내에 대한

⁵⁴ 앞의 책, 161쪽.

⁵⁵ 앞의 책, 237쪽.

⁵⁶ 한반도에 대한 기 소르망의 소회는 소르망(1998), 211~240쪽 참조.

궁금증이 커져갔다.

마침내 아산은 칩거를 끝냈다. ‘북한에 소 1000마리를 보내겠다!’는 것이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이 한반도 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경악시켰다. 17살의 나이에 아버지가 소 판돈을 몰래 들고 가출해 오늘날의 현대그룹을 만들었기에, 이제 그 빚을 갚겠다는 정말 기막힌 ‘명분’이자 최고의 스토리텔링 퍼포먼스였다. 놀랍게도 북한이 화답했고, 때마침 영국 런던대학교의 연설에서 ‘겨울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라는 이솝 우화를 통해 통일 기조를 햇볕정책으로 돌린 김대중 정부 역시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아산은 625 전쟁 기념일을 며칠 앞둔 1998년 6월 16일 제1차로 소 500마리를 트럭에 싣고 판문점을 통해 방북했으며 4개월 후 501마리의 소를 몰고 2차 방북했다. 무력대치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은 판문점을 통해 민간 기업이 북한을 방문한 첫 사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때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그의 숙소를 깜짝 방문해 사의를 표하였다. 전 세계 언론이 이 감격의 드라마에 흥분과 열광을 감추지 못했으며, 상황이 반전되어 롯데와 삼성을 비롯한 재벌가의 출연 소식 등은 순식간에 묻혀버렸다. 위기를 기적으로 바꾼 이른바 신의 한수였던 것이다.

소떼 방북이벤트는 번득이는 한순간의 지략에 그치는 것일까?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간 뉴욕 방문 마지막 날이던 2014년 9월 24일 미국의 우수 연구기관 대표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통일에 관해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듯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면에서 1998년 이루어진 아산의 소떼 방북은 남북간의 증폭된 적대감과 차이를 비롯해 난마같이 얽힌 불신과 오해의 벽을 마치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처럼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진보의 패러다임마저 바꾸는 사고혁명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고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 정벌에 앞서, 아무도 풀지 못했다는 고르디우스 왕의 전차를 묶고 있던 매듭을 단 칼에 잘라버렸다는 일화처럼 아산의 정치철학과 역사의식은 이데올로기의 폐쇄성이나 체제의 경직성, 그리고 이론의 교조성을 훌쩍 뛰어넘어 얼마나 진보적이고 실천적인 전위적 실험정신에 기초하고 있었는가! 아산은 분단 상황이란 구조를 경직된 실재로 교착시키기보다, 그 틈새를 바라보았다. 겨레의 소원인 통일, 그 ‘통일의 정치’는 아산처럼 해야 한다.

세계은행 보고서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한국은 근대화과정에서 철강, 제철 같은 중공업이 아닌 건설업이 국가 산업을 주도한 특이한 경험을 갖고 있다.⁵⁷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사회 간접자본 투자와 국가 기간산업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비료공장과 춘천댐, 발전소 건설 등이 이어진다. 그러나 곧 정부 주도의 국내 건설 투자는 한계에 직면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아산은 해외로 눈을 돌린다. 1965년 9월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한 ‘역사적인 사건’을 만든 것이다. 기업 한류의 첫 출발이자, 이후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 공사’였던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외화벌이로 한국 기업들이 나선 중동 진출의 발판이 된다. 정변이 일어나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경유착이나 부정축재의 오명으로 기업인들을 다그치던 시대에, 이런 비난을 피해 해외로 눈을 돌려 외화도 벌고 기업 역량도 강화시켜 애국한 그 시대 기업인들과 함께 아산은 기업 한류의 진정한 선구자였다.

아산은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고 결여를 존재로 치환한 창의적 기업인이었다. 이런 그의 진취적 시대정신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일화는 중동 진출이다. 1973년 제1차 오일쇼크가 터지면서 불황과 인플레이션으로 나라 자체가 부도 직전의 상황을 맞는다. 전

⁵⁷ 정주영(2011), 127-8쪽 참조.

세계가 휘청거릴 때 중동은 돈이 넘쳐 야심찬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아산은 이런 상황을 천재일우의 기회로 여기고 1975년을 중동진출의 해로 정하고 본격적인 오일달러 사냥에 나선다. 구미(歐美) 유수의 건설업체 9곳과 치열한 경합과 기막힌 우여곡절 끝에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건설 공사를 9억3천1백4만 달러로 낙찰 받는다. 외채 상황에 허덕이고 있던 1976년 당시 우리나라 예산의 반에 해당하는 액수였으며, 건국 후 최고의 외환보유였다.

사실 현대건설의 주베일 항만공사는 외화벌이도 벌이었지만, 한국식 기업그룹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업한류의 산실 역할을 한 점이 주목될 필요가 있다. 아산은 항만 공사에 필요한 대형 철구조물 등의 기자재들을 당시 불황이 밀어닥쳐 일손을 놓고 있던 울산조선소에서 직접 제작해 대양을 거쳐 수송한다. 울산서 주베일까지는 1만 2천km로 경부고속도로를 15번 왕복하는 거리였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비웃고 불가능하게 여겼던 일이다. 1개당 무게가 550톤이나 하는 구조물들을 대형 바지선에 싣고 세계 최대 태풍권인 필리핀 해양을 지나, 동남아 해상, 몬순의 인도양을 거쳐 걸프만까지 19번을 왕래하여 계약을 준수했을 때, 이미 기업 한류는 원형을 갖추었다. “중공업과 건설의 이 특이한 유기적인 관계로 우리의 해외 건설 외화 가득물이 다른 건설업체의 거의 2배에 달했다.”⁵⁸ ‘현대’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에서 꼽은 세계 5백대 기업에 1976년 진입하고, 1978년 1백대 기업에 진입한다.⁵⁹

WTO(World Trade Organisation)가 1995년에 정식 출범한 것을 염두에 두면, 현대가 해외 사업을 개척한 1970, 80년대는 다국적기업이나 글로벌 세계 경제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시대였다. 한국전쟁 이후 더구나 국민소득 60달러에 불과했던 나라의 기업이 노동과 기술, 그리고 자본과 시스템이 결합되고 또한 해외 현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해외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해 완수하는 것은 막연히 경제적 관점이나 ‘현대’라는 기업의 시야에 가두어 이해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 존재와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 아니 또한 진정 ‘진보란 무엇인가?’ 하는 오래된 철학적 질문으로 아산을 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⁵⁸ 앞의 책, 232쪽.

⁵⁹ 앞의 책, 249-250쪽 참조.

이런 점에서, 글을 맺기 전에 아산의 교육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마무리로 언급하고자 한다. 사실, 기업인 정주영에 대해 알려진 것에 비해 그가 교육이나 복지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점은 그리 잘 알려져 있는 편이 아니라 생각한다. 필자 역시 아산 집필자 모임에서 아산을 알았던 지인들이 들려 준 이야기로 처음 접했다. 그는 이화여자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등에 기부와 희사를 아끼지 않았지만, 또한 지역사회학교 활동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었다고 한다. 아산의 이런 뒷모습은 배움에 대한 갈증과 진실한 베품의 가치에 대한 자기인식에서 비롯한다. “나는 소학교 졸업밖에는 못한 사람이지만, 평생 ‘좋은 책 찾아 읽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⁶⁰ 성장환경과 개인 이력에 비해 그만큼 학습과 교육의 중요성을 새기고 있었다는 말이다.

지역사회학교 활동이란 이론이나 학문중심의 학교 교육과는 달리 각 학교가 위치하는 지역사회와 교육을 밀접하게 관련시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과 동시에 학교의 교육을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개방하여 운영하는 것을 취지로 삼았다. 따라서 제도 교육의 좁은 범위를 넘어 때로는 지역주민 전체를 교육대상으로 삼아 지역 리더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주도하려는 운동을 지향하였던 교육활동이었다. 어쩌면 이는 아산이 생각했던 교육 본연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의 관심은 매우 적극적이어서 때로는 교육 자체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한다. 아마도 아산이 사회복지재단에 관심을 두게 된 것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뿌리를 내리고자했던 그의 진취적 관심의 연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아산은 록펠러 재단이나 포드 재단에 버금가게 ‘의료사업과 사회복지지원 사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 장학사업’ 등을 하기 위해, 1977년 당시 배당금조차 쓰지 않고 쌓아 탄탄한 재무구조를 자랑하던 현대건설의 개인 주식 50%를 출자해 ‘아산사회복지사업 재단’을 설립하였다. 기업 공개를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무색해지게, 아산은 1년 반만에 병원이 없어 치료받기 어려운 지역인 정읍, 보성, 인제, 보령, 영덕 등 5곳에 현대식 종합병원을 세우고 의료시혜 사업을 해나가기 위한 기공식을 끝낸다. 이 재단을 통해 해마다 10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불우한 장애인 등 어려운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업에 매년 5억 원 정도씩 도와주었다.⁶¹ “현대가 돈을

⁶⁰ 앞의 책, 416쪽.

별어 부자가 됐다면 그것이 어찌 현대식구들만의 힘으로 꾸려진 일이겠는가? 그 밑바탕에는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준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현대건설의 부 가운데 일부를 현대아산재단을 통해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야말로 나 정주영에게 지워진 하늘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맺음말

현대차그룹이 삼성동의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2014년 9월 18일 10조 5500억원에 낙찰받았다. 이를 둘러싸고 업계의 뒷말도 많고 주주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사연으로 치자면 이 땅 인수에 현대만큼 자격이 있는 기업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산이 1970년대 서울의 한강이남 쪽에 제방을 쌓아 땅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현대’의 돈벌이로 만드는 대신, 공사비 명목으로 1평에 1만 8천 원씩 서울시에 주었다. 그것이 오늘날의 강남이다.”⁶² 서울의 변화와 발전의 역사가 강남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첫 단추는 아산의 탁월한 진취적 기업 정신에서 비롯했다. 아산은 일제와 전란으로 피폐하고 사물화된 한국인의 긍정적 자부심을 회복시켜 우리식 산업혁명을 성공시킨 한국 현대사의 오디세우스였다.

“세계에서의 어떠한 위대한 것도 정열 없이는 성취되지 않았다”고 말한 헤겔처럼, 아산은 시련을 의지로 바꾸고, 난관을 지혜로 성장시켰다. 막노동, 농업노동, 상업노동, 공업노동 등 모든 형태의 노동을 종합적으로 경험한 아산은 ‘생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보다 많은 생’을 통해 ‘생의 자기초월’을 실천했다. 다중지능이론으로 유명한 가드너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서의 지능’이란 관점에 서면, 아산은 학력은 모자라도 우리 사회의 시대적 문제를 가장 탁월하게 해결한 몇 안 되는 높은 지능의 소유자였다. 원효대사가 탁발을 통하여 아만과 고집을 없애는 수행의 길을 활짝 열었다면, 아산은 빈대가 깨닫게 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교훈을 통해 보시하는 쪽에서 창업으로 공덕을 쌓는 수행의 길을 찾았던 것이다.

⁶¹ 정주영(1986), 373쪽.

⁶² 정주영(2011), 393쪽.

또한 그의 정치철학과 역사의식은 이데올로기의 폐쇄성이나 체제의 경직성, 이론의 교조성을 훌쩍 뛰어넘어 진보적이고 전위적인 실천을 이끌었다. 아산은 분단 상황이란 구조를 경직된 실재로 교착시키기보다 그 틈새를 바라보았으며, 겨레의 소원인 통일, 그 ‘통일의 정치’를 이루었다. 오바마가 진정 배우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아산 정신이었다. 오바마의 한국예찬은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미국식 자본주의의 성공모델로서의 한국의 홍보가치에 그치지 않는다. 그가 진정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는 척박한 환경에도 결코 굴하지 않은 한국인의 ‘긍정의지’와 한강의 기적을 일군 ‘도전정신’ 그리고 하나로 뭉쳐 빛나는 ‘애국심’ 때문이었다. 바로 이런 한국인의 신화적인 정신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산과 그의 작품 ‘현대’이다.

생철학은 인간의 도전적 의지가 생의 창조적 도약을 이끌어 나가며, 직관적 예지력이 생 이상의 보다 많은 생의 추동력임을 강조한다. 아산은 시간을 공간화시켜 산술적으로 파악하기보다 베르그송이 말했던 끊임없이 생성 발전하는 ‘생의 약동(élan vital)’으로 직관했다. 또한 아산에게 생이란 단순한 개인적인 생이 아니라 역사로 통하는 사회적 연관으로서의 생이었다. 일제의 수탈과 전쟁의 폐허로 사회발전의 추진력이 고갈된 바로 그 시대에 오로지 피나는 노력과 천재적 통찰 그리고 창조적 상상력만으로 한국의 산업혁명을 일군 황당한 혁명가였지만, 보릿고개를 넘던 팍팍했던 우리 삶에 사회발전의 토대가 생의 의지임을 입증해 준 ‘애국적 생철학자’였다. 또한 그는 생각과 열정을 경영의 변증법적 토대로 삼아 도전적인 의지와 창의적인 노력을 이성의 간지로 우리식의 기업한류를 창조한 ‘한국적 생철학자’였다. ‘제우스신은 모든 인간의 계획을 성취시키지는 않는다’는 호메로스의 말처럼 그도 큰 실패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파우스트가 “언제나 갈망하며 애쓰는 자, 우리는 그를 구원할 수 있다”⁶³고 말했듯이, 아산은 그 갈망과 애씀에서 이미 구원받은 정신이다. 아산은 정치와 경제를 대립적으로 사유하지 않았으며, 기성 정치의 대안을 도식적으로 제안하기보다 겨레의 가슴에 희망을 심고 싶어 했다. 아산의 삶은 이렇게 도전적 창조정신으로 점철된 그의 생철학에 대한 이해에서 다시 한 번 개인적 존재 이상의 역사적·사회적인 실재성이 주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⁶³ 윤순식(2009), 30쪽.

참고 문헌

- 가드너, 하워드, 『마음의 틀』, 이경희 역, 문음사, 1996; 『열정과 기질』, 임재서 역, 서울: 북스넛, 2004.
- 김영정, “비판적 사고와 토목공학, 1: 아산회장과비판적사고,” 대한토목학회지, 『자연과 문명의조화』, 53(3), 2005. 3. 15.
- 김영채, 『창의적 문제 해결 : 창의력의 이론, 개발과 수업』, 교육과학사, 1999.
- 니체, 프리드리히,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사순옥 역, 홍신문화사, 2006
- 소르망, 기(Guy Sorman), 『열린세계와 문명창조』, 박선 역, 한국경제신문사, 1998.
- 오바마, 버락, 『오바마 베스트 연설문』, 김옥현 편저, 베이직북스, 2009.
- 윤순식, 『괴테 토마스 만 니체의 명언들』 누멘, 2009.
- 임종진, “오바마의 한국예찬,” 『한국논단』 제272권, 2012.
- 정주영, 『이 땅에 태어나서』, 솔출판사, 2011; 『이 아침에도 설레임을 안고』, 삼성, 1986.
- 홍성훈, 『다중지능혁명』, 서울 : 랜덤하우스코리아, 2009.
- 한진수 컬럼, 「동아일보」 1981년 4월 20일.
- Gardner, Howard, *MULTIPLE INTELLIGENCES: New Horizons in Theory And Practice*, BASIC BOOKS, 2006.
- Guilford, J. P., “Structure of Intellect,” *Psychological Bulletin*, 53, 1956.
- Hegel, G.W.F., *Phänomenologie des Geistes*, Hamburg : Felix Meiner Verlag, 1952[1807];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Suhrkamp, 1979.[1820]; *Vorlesungen über die Philosophie der Geschichte*, Frankfurt a. M.: Suhrkamp, 1986[1837].
- Heidegger, *Gesamtausgabe*, Bd. 2, *Sein und Zeit*, 1927; Bd. 43, *Nietzsche: Der Wille zur Macht als Kunst*, Frankfurt: Klostermann, 1985.
- Marx, K./ Engels, F. *Werke(MEW)*, hrsg. von Institut für Marxismus-Leninismus, Bde. 43, Bd. 17. Berlin : Dietz Verlag, 1987.
- Simmel, Georg, *Lebensanschauung*, 2 Aufl. München: Duncker & Humblot GmbH, 1922.
- Torrance, E. P.. *Torrance tests of creativity thinking: Norms, technical manual*. Princeton, NJ: Personnel Press/Ginn, 1974.

<Abstract>

Asan's Spirit of Creative Challenge and the First Korea Wave in Business leadership

Lee, Sang Hoon*

This paper analyses the spirits of Asan in the perspective of Humanities and reveals its characteristics as the first Korea Wave leadership in business field. For this purpose, this paper compares the life of Asan with the political initiative of U.S. President Barack Obama at chapter 1. Chapter 2 analyses the spirits of Asan in terms of Lebensphilosophy and shows the meanings of his labor in 3 categories. In Chapter 3, I will reveal the creativities of Asan with the theory of Howard Gardner's multiple intelligence. Chapter 4 deals the avante garde spirit of Asan and explain his political progressiveness and experimental challenges in all spheres.

Keywords : Lebensphilosophy, the Spirit of Challenge, Obama, Multiple Intelligence,
Korea Wave Leadership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 Culture Contents, Daejin University